人文社會科學論叢 2007年 15號 pp. 99~134

FDI諸學說의 모델에 관한 硏究

崔 宗 洙*

A Study on Various Models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ies

Jong-Soo Choi*

Abstract

This paper aims to gather and re-classify various study models about FDI. There are so many classification systems explaining main reasons of FDI.

Those systems are different each other owing to the different view points of individual scholars. This paper tries to pull out new theoretical classification system after checking most of all main existing systems about FDI.

Ⅰ. 서 언

국제간의 사업활동은 일반적으로 무역, 라이슨싱(Licensing: 지식·기술의 판매) 및 해외투자로 대별되는 바, 종래의 무역지향적 국제경제거래패턴은 해외현지에서의 생산판매 지향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1950년대 이후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특히 근년 들어 경제적 역할이 지배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점을 가리켜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MNE)[1]은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체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1) 다국적기업의 용어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란을 거쳤으나 아직도 그 개념이 통일되어 정립되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UN 경제사회이사회의 "二國間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공장, 광산, 판매, 기타 영업소 등을 지배하는 모든 기업"이라는 극히 광범위한 정의를 채택키로 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① N. H. Jacob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Centre Magizine*, (May, 1970), p.38.

② A. Steiner and W.M. Cannon, *Multinational Corporate Planning*, (New York: The Mcmillan Co., 1966), p.6.

③ J. Fayerweather,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New York: McGraw Hill, 1969), p.13.

④ M. Z. Brooke and H.L. Rammers, *The Strategy of Multinationl Enterprise*, Harvard Univ.

제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경제기구 중의 하나[2]라고 J.H. Dunning이 주장하였듯이, 다국적기업은 앞의 세가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다국적기업의 주된 기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일컬어 F.R.Root는 경영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해외기업에의 장기지분투자로 투자국(Home Country)에서 수용국(Host Country)으로 흐르는 단순한 자금의 이전이 아니라 경영·기술·자본 등의 묶음(Bundle)으로 이전되는 기업확장[3]이라 설명하며, 小島 淸은 해외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대한 통제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전 및 기타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4]라고 풀이하는가 하면, G. Ragazzi는 해외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갖는 투자분으로 이는 신규투자이익의 재투자 및 현지금융 등을 통한 자금이익 뿐만 아니라 기술·경영등의 실물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외투자[5]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해외투자로서 자본이전과 아울러 제품, 기술, 경영 등이 복합적으로 현지에 이전되는 투자형태라 규정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실로 다양하여 경제학적, 경영학적, 정치학적, 법률학적 및 사회학적 제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경영학적 연구자라 할지라도 연구자료의 상당한 부분을 법률학적 측면에 할애하고 있다.[6] 세계제2

Press, (Cambridge, Mass. : 1970), Preface.

⑤ M. Wilkins, *The Emerge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 : 1970), Preface.

⑥ J. Dunni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1), p.17.

⑦ J. Maisonrouge, *Procedings of the Conference o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State Department*,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State, 14 Feb., 1969), Mimeograph, pp.17~18.

⑧ J.N. Behrman, *Some Patterns in the Ris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Univ. of North Corolina, (Chapel Hill, N. C.: 1969), p.62.

⑨ E.J. Kolde, *International Business Enterprise*, 2nd edition, (Engelwood, New Jersey : Prentice-Hall, 1973), pp.134~136.

⑩ S.E. Rolfe,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I. C. C., 1969, p.18.

⑪ D.E. Lilienthal, "Multinational Corporation", Business Week, June 29, 1963, p.49.

⑫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World Development, (New York : 1973), pp.4~5.

2) John H. 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1), p.3.

3) F.R.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d., (Cincinnati, Ohio:South-Western Publishing Co., 1978), pp. 509~517.

4) K. 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New York : Praeger, 1978), p.12.

5) G. Ragazzi, "Theories of the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Staff Papers, IMF, (July, 1973). pp. 471~498.

6) 이를테면 로빈슨(R.D. Robinson)은 다음 저서의 제2~장을 법률적 및 정치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킨들버거(C.P. Kindleberger)도 다음 편저서의 제3부를 법률과 정치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고, 파머와 리치맨(R.N. Farmer & B.M. Richman)의 공저서에서도 환경요인으로서의 법률·정치를 중시하고 있다.

① R.D. Robinson, International Bushiness Policy, (Holt Rinehart & Winstone, 1964).

② C.P. Kindleberger,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 Symposium, (Massachusets Institute of

dCollection

차대전 후 다국적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를 독립된 경제현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S.H. Hymer[7]를 그 효시라 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해외직접투자를 자본의 한계생산력차이 즉 국제간의 이윤율격차에 의하여 자본이동이 발생한다는 전통적 국제자본이동의 일반이론으로 해명하려함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란 기술과 경영통제권 등이 자본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무역이론이나 국제자본이동론 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고조되자 이를 해명키 위한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어 헤쳐 나아가기 어려운 정글(jungle)을 이루게 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이론의 큰 흐름은 1) 독점적 우위이론→2) 내부화이론→3) 절충이론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이론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제이론은 각기 해외직접투자의 일부문을 설명할 뿐 객관적 보편타당성을 갖추어 명쾌히 해명할 수 있는 이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통합이론을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1) 해외직접투자이론이 구명해야 할 범위 또는 요건을 설정하고
2) 그동안 발표된 제이론의 주된 흐름을 개관하며,
3) 동 연구에 대한 새로운 조류와 연구방향을 검토한 후
4) 기존의 수 많은 이론을 논자들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5) 제이론의 정글을 동류이론별로 체계적 재분류를 시도함으로써,
6) 통합이론의 정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코자 한다.

Ⅱ. 해외직접투자이론의 요건

무릇 이론(Theory)이란 어떤 현상과 다른 어떤 현상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8]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론의 구축은 현실의 추인이라 할 수 있

Technology, 1967).

③ R.N. Farmer and B.M. Richman, Comparative Management and Economic Progress,(Irwin, 1965).

7) S. H. Hymer,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National Firms,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1976). 이는 Hymer의 MIT 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 1960년에 완성되었으나 1976년에 출판되었다.

8) 大塚久雄, 社會科學の方法, 岩波新書, (東京:岩波書店, 1979), pp.4~95.

dCollection

으므로 해외직접투자이론도 이에서 다루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이론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이론으로 인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F.R. Root는 어떤 이론이 해외직접투자이론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의 기본적 현상, 즉 1)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는 이유, 2) 진출한 기업이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위성의 원천, 3) 수출이나 Licensing 대신 직접생산활동의 방법을 택한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 여기에다 부수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현상으로 1) 과점적 대기업이 해외투자를 지배적으로하는 이유, 2) 해외직접투자가 특정의 산업에서만 빈번한 이유, 3) 국가 및 산업수준에서 역투자(Reverse Investment)가 발생하는 이유, 4) 미국 등 소수의 국가만이 해외직접투자의 원천이 되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한편 池本 清은 해외직접투자이론이 다음의 제문제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0] 1) 어떠한 국제경제체제하에서, 어떠한 논거로 직접투자의 자유교류가 허용되는가, 2) 어느 나라,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직접투자를 하는가, 3) 어느 나라의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가, 4) 언제 이루어지는가, 5)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제품에 대하여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지며 그 이유는 어떻게 변하는가, 6) 수출, Licensing, Management 계약을 하지 않고 왜 직접투자 방식이 선호되는가, 7) 직접투자가 결정되었을 때 쓰이는 기술과 경영 Staff는 어떻게 하는가, 8) 기업내국제분업(Intra-Firm Division of Labour)의 Network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9) 이체가격(Transfer Pricing)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10) 직접투자가 투자국에 주는 Micro · Macro적 효과는 무엇인가. 11) 또 수용국에 주는 Micro · Macro적 효과는 무엇인가, 12) 이러한 효과가 문제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 한 층 더한 Incentive가 제공되는가, 13) Nationalism으로 이해대립(Conflict)이 생기면 어떻게 규제하는가, 14) 현지화(Localization), 투자회수(Divestment), Fade Out(소멸) 등은 어떤 형태로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가, 15) 바람직한 직접투자의 방향은 무엇인가, 16) 왜 다국적화하는가, 17) 직접투자의 장래성은 어떠한가.

위 두 학자의 이론구조요건을 참조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이론이 해명하여야 할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외국기업이 수용국의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국비용(Cost of Foreigness)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를 행하게 되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9) F.R. Root, op. cit., pp.517~518.
10) 池本 清, 國際貿易論の研究, (東京 : 千倉書房, 1983), pp.141~144.

dCollection

(Firm-Specific-Advantage)는 무엇인가.

2) 다양한 국제경제거래형태 중 비교적 위험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해외투자형태를 왜 취하는가 하는 기업우위요소의 직접투자형태 선호 이유

3) 어느 나라, 어느 산업, 어느 기업이 해외투자활동을 주도하는가 하는 생산입지상의 조건

4) 해외에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어떻게 운영·확장할 것인가 하는 경영관리상의 기법

5) 보편성의 확보와 효율성(Efficiency) 및 공평성(Equity)에 기초한 규범적 가치의 충족

이와 같은 논의는 결국 다국적기업의 生成因 또는 決定因, 현실적인 행태 및 당사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구명하는 제이론의 근저에는 시장이 불완전해야[11] 한다는 전제를 조건부로 한다. 왜냐 하면 완전경쟁상태하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시장지배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전 기업은 동질적 생산과 생산요소의 균등사용으로 특정의 기업이 우위요소를 가질 수가 없어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12]

Ⅲ. 제이론의 개관

본장에서는 그간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된 수 많은 해외직접투자이론의 흐름을 동 분야에 업적을 두드러지게 쌓아가고 있는 池本 淸 교수의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제이론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고자 한다.[13] 1970년대 중기까지의 直接投資決定因理論은 다음과 같다.

(1) 이윤율격차론(Theory of Differential Return) : 국제경제학에서의 자본이동론을 원용한 것으로 G. D. A. MacDougall(1960)[14] 의하면 이윤율이 높은(따라서 자본이 희소한) 나라로 이윤율이 낮은 자본풍부국으로부터 자본이 이동하다는

11) C.P. Kindleberger,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69), p.13.
12) 불완전시장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
① C.P. Kindleberger, op. cit., pp.1~36.
② G. Ragazzi, Loc. cit.,
13) 池本 淸, 전게서, pp. 145~147.
14) G. D. A. MacDougall, "The Benefits and Costs of Private Investment from Abroad : A Theoretical Approach", Economic Record, No.36, (March, 1960), pp.13~35.

dCollection

것이다. 그러나 직접투자란 우수한 생산기술·경영기술 및 자본이 패키지(Package)로 이동하기 때문에 국제자본이동론이 직접투자분석이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조직론적 접근(Monopolistic Theory Approach) : S. H. Hymer(1960)[15]와 C. P. Kindleberger(1969)가 중심이 되어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을 특수적 우위(즉 우수한 생산기술, 우수한 마케팅기술, 상표 등)를 가진 과점적 대기업이라고 주장한 이론이다.

(3) 입지론적 접근(Location Theory Approach) : 시장과의 거리, 수송비, 생산요소의 위치 등에 따라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4) 통화지역접근(Currency Area Approach) : R. Z. Aliber[16]의 주장으로 강세의 통화는 약세의 통화에 대하여 통화 프레미엄으로 인한 우위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5) 증권시장불완전이론(Imperfection of Security Market) : 직접투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나, 증권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증권에 투자하기 보다는 직접투자하는 편이 위험분산과 고수익의 양면에서 낫다는 관점이다.

(6)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 : R. Vernon(1966)[17]에 따르면 신제품이 성숙단계를 거쳐 표준화단계에 이르면 외국기업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방위적 반응에서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7) 과점적반응이론(Band Wagon Effect): F. T. Knickerbocker(1973)[18]는 과점적 경쟁기업간의 대응적 진출 및 상호침투론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8) 기업행동론적접근(Behavioral Approach): Y.Aharoni(1966)[19]는 직접투자를 시장성장성이나 이윤보다도 직접투자 프로젝트를 입안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더 중하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무역장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투자를 행한다든지 환율의 영향을 고려하는 이론들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제가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베이가 이루어져 왔다. 즉 G. Ragazz

15) S.H. Hymer, United States Investment Abroad, in Peter Drysdale e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 Press, 1972), p.41.
16) R.Z. Aliber,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C.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 MIT Press, 1970), pp.156~173.
17) R.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0, 1966), pp.190~207.
18) F.T. Knickerbocker, Oligopolistic Rea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Harvard Univ. Press, 1973), Chapter 3.
19) Y. Aharoni,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Graduate School of Research,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66), pp.54~55.

dCollection

i[20]는 위의 (2)와 (5)의 이론 이외에도 자국의 성장이 타국보다 낮게되면, 그리고 관세장벽이 높은 나라와 통화가 과소평가된 나라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펴고 있다. J. H. Dunning은 (1)~(4)(6)의 이론을, P. J. Buckley and M. Casson은 (2)(4)~(8)의 이론을 언급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신조류로써 특기할만한 4가지 측면에서의 이론이 등장하자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서베이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N. Hood and S. Young의 저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한 편이다.[21] A. M. Rugman도 간결한 서베이를 제공하고 있다.[22] 한편 J. P. Agarwal은 수출·라이슨싱·직접투자의 3자간의 선택문제를 포함하여 서베이하고 있다.[23] 여기서는 요소시장과 제품시장을 완전·불완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바, 완전시장을 가정하는 가설에서는 앞의 (1)과 (5)의 이론 이외에도 생산·시장규모가설(직접투자는 수용국에서의 생산과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불완전시장에 기초한 가설은 앞의 (6)~(8)의 이론과 내부화이론이 내포되어 있으며, 직접투자를 행하는 성향에 대해서는 유동성가설(기업내부의 현금흐름과 투자지출간)에 正의 상관관계를 가진)과 (4)의 이론을 포용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는 특정기업의 직접투자결정인이론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池本 淸은 직접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포함하는 모델을 서베이하고 있다.[24] 이에 따르면 MacDougall, R. A. Mundell(1957),[25] A. Schmitz and P. Helmberger(1970)[26] 및 D. D. Purvis(1972)[27] 등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기업에 특수적인 우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의 분석에 불과하다고 보고 여기에 특수적 요소를 포함한 小田正雄(1974),[28] R. Caves(1971)[29] 및 池間 誠(1974)[30]의 가설을 서베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적 요소 모델에서는 자본이 일반적 요소가 되며 一回限의 직접투자의 효과를 미치는 데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20) G. Ragazzi, Loc. cit.,
21) N. Hood & S. Young의 저서란 다음을 말한다.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9).
22) A. M. Rugman, Multinationals in Canada: Theory, Performance, and Economic Impact, (1980).
23) J. P. Agarw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urve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Review of World Production, Oxford Economic Papers, (No. V, 1973), pp. 289~336.
24) 池本 淸, "比較生産費說と 特殊的 要素", 國民經濟雜誌, (1968年 4月號).
25) R. A. Mundell, "International Trade and Factor Mo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47, (June, 1957).
26) A. Schmitz and P. Helmberger, "Factor Mobilit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Case of Complementarity",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70).
27) D. D. Purvis, "Technology, Trade and Factor Mobility", Economic Journal, (Sept., 1972).
28) 小田 正雄, "直接投資の 一般均衡分析", 經濟論集, 關西大學, 第24卷6號, (昭和 50年 3月).
29) R. Caves,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Feb., 1971), pp.1~27.
30) 池間 誠, "直接投資: 一の理論的 アプローチ", 世界經濟評論, 18(8), (1974年 8月號), pp.48~52.

dCollection

있어 池本 清 교수가 행한(1975) 직접투자와 무역의 최종균형의 일반적 분석[31]을 추가하고 있다. 小島 清은 특수적 요소이론을 거부하고 Heckscher-Ohline정리를 원용한 비교이윤율, 비교생산비의 대응명제를 제시하였다.[32] 그리고 과세와 다국적기업행동에 관해서는 G. F. Kopits[33]가, 직접투자를 수용한 개도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S. Lall[34]이 서베이하였다.

Ⅳ. 제이론의 학자별 기성분류

동일한 사상을 두고도 이를 구명하기 위한 이론은 다양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접근하기 시작한 동기나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고, 완전시장·불완전시장 등 가정이나 전제가 동일치 않으며, 시각 또는 관점에 차이가 있고, 미시적 분석·거시적 분석 등 분석의 기법이나 도구가 다르며 이데올로기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투자이론의 경우는 투자대상업종이나 대상지역(또는 대상국가), 규제하는 법규나 관습, 심지어 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경로나 행태에 따라서도 상이한 이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기 마련인 제이론을 분류하는 데에도 동일한 체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분류자의 가치기준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는 동일이론의 해석이나 명칭의 미묘한 차이에도 완전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특정의 이론이 다수의 학자에 의해 발전·변형·변질되거나 타 이론과 관련을 맺어 내용이 흡수·조정 또는 복합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데 이러한 경우 그 구분의 한계를 설정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하에서는 분류자의 분류기준을 불문키로 하고 歐美,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셋으로 나누어 발표된 논문 등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분류체계를 요약하여 일별함으로써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1. 歐美 논자들의 분류

1) S. H. Robock과 K. Simmonds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에 관계되는 기존의

31) 池間 誠, "海外直接投資の 理論的 分析", 神戸大學 經濟學研究年報, (1975).
32) 小島 清, "多國籍企業の直接投資", (東京:タクヤモンド社, 1981).
33) G. F. Kopits, "Taxation and MNE Behavior", IMF Staff Papers, (1976).
34) S. Lall, "Transnationals, Domestic Enterprises and Industrial Structure in Host LDCs: A Survey", Oxford Economic Papers, 1978 in S. Lall e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1980).

dCollection

제이론을 ① 국제무역이론, ② 직접투자이론, ③ 기업경영적 연구로 대별하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 ① 과점적 모델, ② 제품주기모델, ③ 국제적 경영자원의 이전모델로 분류하고 있다.[35]

2) I. H. Giddy와 S. Young은 현재의 해외직접투자이론체계를 ① 기업특수적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 of Firms), ②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및 ③ 입지특수적 요소이론(Location Specific Factors)로 구분짓고 있다.[36]

3) F. R. Root는 제이론을 ① Portfolio이론, ② 독점적 우위론, ③ 과점이론 및 ④ 제품주기이론(PLC)으로 분류하여 논술하고 있다.[37]

4) J. H. Dunning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① 조사접근법(Survey Approach), ② 자본이동론(Capital Approach), ③ 무역이론(Trade Teory), ④ 입지이론(Location Approach), ⑤ 생산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 Market Structure) 등의 5가지 群으로 분류하고 있다.[38]

5) G. Grosse는 ①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② 투자이론(Investment Theory), ③ 입지이론(Location Theory), ④ 기업의 이론(Theory of the Firm) 및 ⑤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등의 범주로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분류하고 있다.[39]

6) G. Ragazzi는 해외직접투자가 완전경쟁가정(Perfectly Competitive Condition)으로부터 이탈된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완전경쟁가정으로 다음과 같은 네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40] 즉,

① 외국주식(Foreign Equities)의 수익성과 위험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② 일국의 기업이 현지기업보다 더 수익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특유적 우위(Special Advantage)를 소유할 수 없다.

③ 개인 및 기업의 목적은 경쟁시장에서 이익의 확대화에 있다.

④ 개인 및 기업은 환위험에 대한 동일한 프레미엄(premium)이 적용되며 이러한 위험을 동등하게 카바(cover)할 수 있다고 말하고, 상기 제가정중 어떠한

35) S. H. Robock and K. Simmonds & J. Zwich, Internationa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Homwood, Illinois: Richard D. Unwin Inc., 1977), pp.33~34.
36) I. H. Giddy and S. Young,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in A. M. Rugman 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Canberra : Croom-Helm, 1982).
37) F. R. Root, op. cit., pp.518~530.
38) J. H. Dunning,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Oxford Economic Papers, (No. V, 1973), pp.289~336.
39) G. Grosse, Essays in International, (Florida: Coral Gables, 1981), pp.10~11.
40) G. Ragazzi, Loc. cit.,

dCollection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 증권시장의 불완전성(① 가정으로부터의 이탈)

㉡ 지식의 우위 및 규모의 경제(② 가정으로부터의 이탈)

㉢ 과점 및 경쟁의 극대화(③ 가정으로부터의 이탈)

㉣ 관세 및 환율의 영향(④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의 네가지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7) J. P. Agarwal은 Ragazzi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이론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41]

제1군 : 요소 및 제품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가정한다. (이윤율격차이론, 포오트폴리오 이론 등)

제2군 : 시장의 불완전성을 가정하면서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현지의 경쟁기업에 대해서 한가지 이상의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가정한다.

제3군 :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국가, 산업 및 기업의 경향(propensities)에 관한 가정들을 포함한다. (독점적우위이론, 제품순환이론, 과점적행위이론, 내부시장이론 등)

해외직접투자의 경향에 대한 가설로는 도박(gambling) 이론, 해외직접투자수익의 約 半을 해외에 재투자한다는 통화지역이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일본 논자들의 분류

1) 原 正行 교수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대표적 이론을 들어 ① 무역론적 접근이론, ② 자본론적 접근이론, ③ 기업성장론적 접근이론 및 ④ 산업조직론적 접근이론으로 비교적 간결하게 분류하고 있다.[42]

2) 池本 清 교수는 다음의 그림1과 표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해외직접투자이론의 체계를 퍽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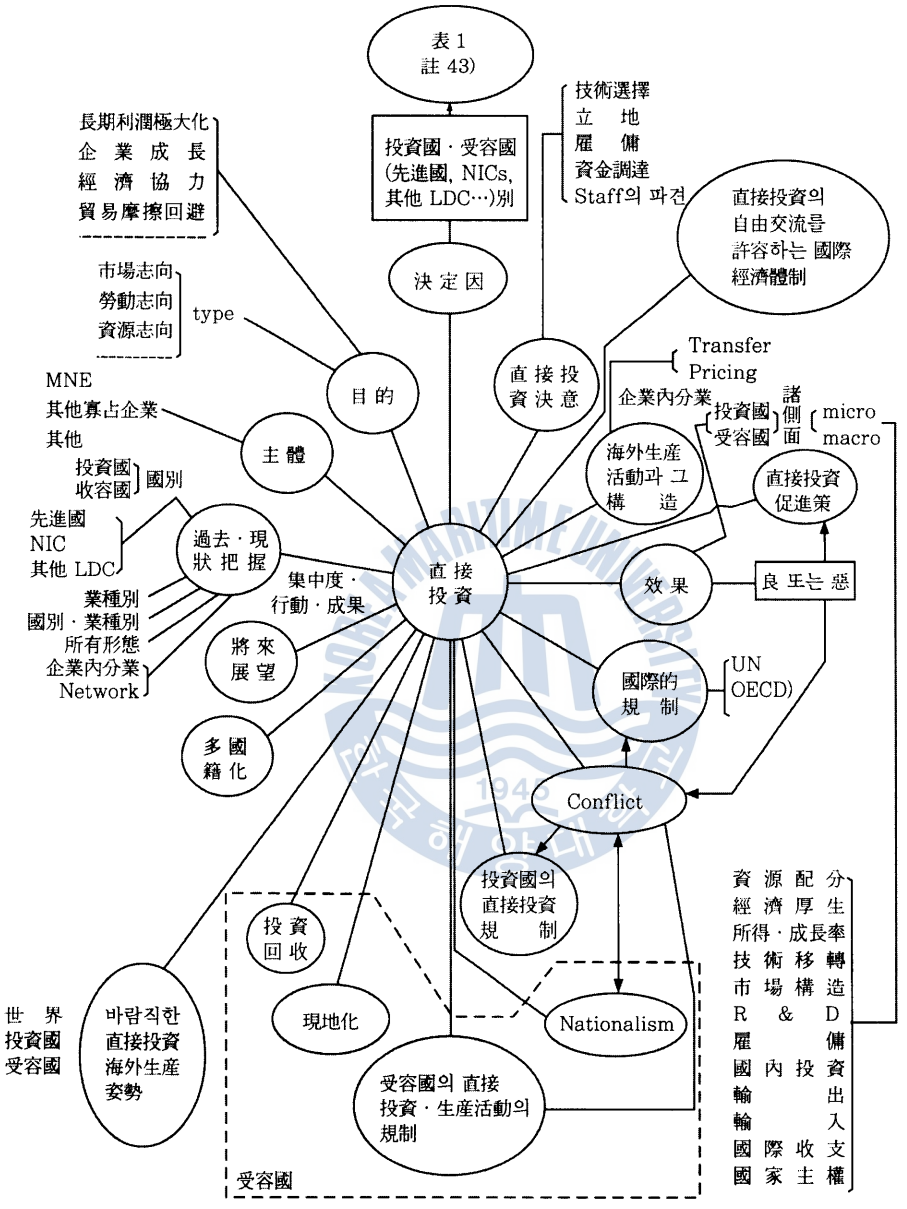
41) J. Agarwall, Loc. cit.,

42) 原 正行, "直接投資の理論", 現代國際經濟學の展開, (東京 : 勁草書房, 1981), pp.91~164.

43) 池本 清, 前揭 國際貿易論の研究, pp. 14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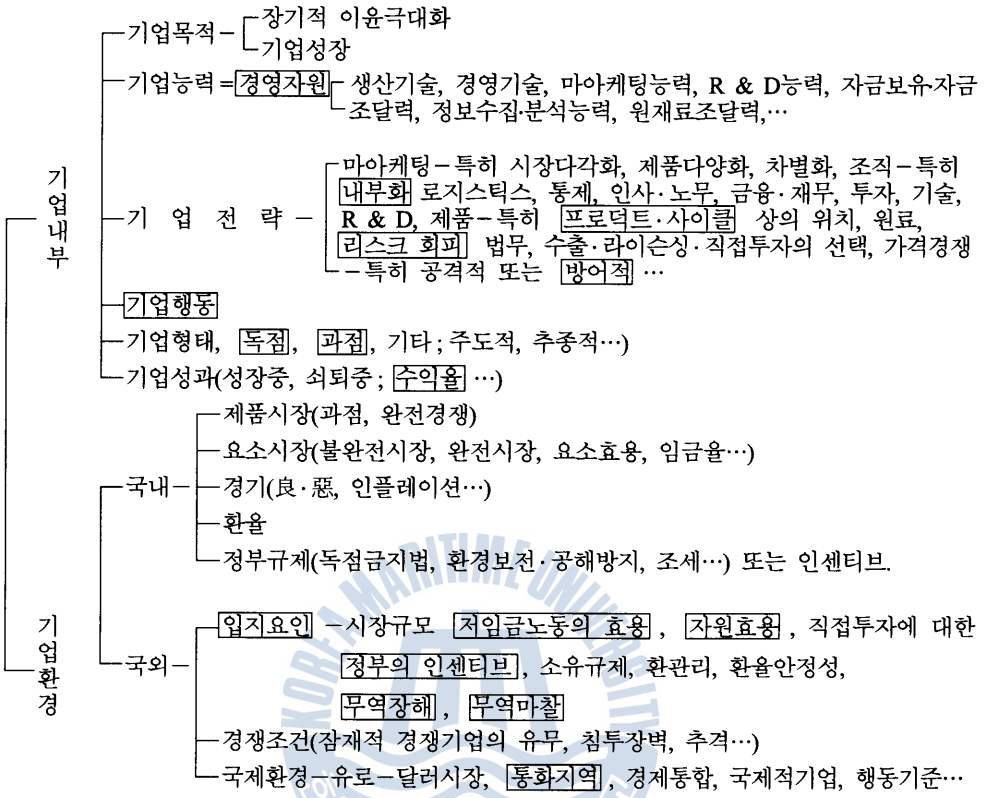
dCollection

(그림 1) 해외 직접투자 이론의 체계



dCollection

(표 1) 해외 직접투자의 決定因(池本 清)



(주) □은 각종의 현행 직접투자결정인 이론중 주요한 것을 나타냄.
기타 : 상기 □을 모두 통합적으로 망라한 절충이론이 있다.

3. 우리나라 논자들의 분류

1) 양성모 교수는 그의 논문[44]에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① 전통적 해외직접투자론, ② 신해외직접투자론으로서 제품주기이론과 절충이론으로 크게 묶은 뒤 각 군에 속하는 주요학자별 제이론의 주요 흐름과 내용 및 그 한계를 밝히고 있다.

2) 빈봉식 교수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을 논하는 과정에서 F. D. I의 일반적 결정이론을 살피고 대표적 이론으로서 ① 독점적 우위이론, ② P. L. C이론, ③ 내부화이론, ④ 순위이론, ⑤ 거시경제적 이론, ⑥ 절충이론을 들고 있다.[45]

44) 양성모,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진흥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6), pp.5~8.

dCollection

3) 김희욱 교수는 F. D. I. 연구가 국제경제학적 입장과 국제경영학적 입장의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하여 시도된다고 전제하고 대표적 이론으로서 ① 이윤율 격차이론, ② 산업조직론으로서 독점적 경쟁론과 P. L. C.이론, ③ 경영자원이동론, ④ 내부화이론, ⑤ 절충이론을 설명하고 있다.[46]

4) 반병길 교수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에 대해 경영학적 접근방법으로 설명을 시도할 때 실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설로서 ① 무역보완론, ② 기업성장론, ③ 과점기업의 해외진출론, ④ P. L. C. 이론, ⑤ 경영자원이전론, ⑥ 절충이론을 꼽고 있다.[47]

5) 허남벽 교수는 중진국형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모형화를 시도하면서 관점에 따른 제이론을, ① 자본이동론의 관점에서 이윤율 격차이론, Portfolio 이론 및 통화지역이론으로, ② 산업조직론의 관점에서 독점적 우위이론, P. L. C. 이론 및 과점적 경쟁이론으로, ③ 국민경제론적 관점에서 독점적 우위이론, ④ 일반론적 관점에서 내부화시장이론, 그리고 ⑤ 통합적 관점에서 절충이론을 들고 있다.[48]

6) 민상기 교수는 주요한 학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49] 즉, ① 기업성장이론, ② 생산입지이론, ③ 유동성이론, ④ 독점적 우위론, ⑤ 제품환경이론, ⑥ 순위이론, ⑦ 행위이론, ⑧ 과점적 경쟁이론, ⑨ 변증법적 투자이론, ⑩ 통화지역이론, ⑪ 증권시장불완전이론, ⑫ 위험분산서비스이론, ⑬ 거시경제적 접근이론, ⑭ 종속이론, ⑮ 내부화이론, ⑯ 사적 소유가능성이론, ⑰ 절충이론

7) 노택환 교수는 다국적기업에 관하여 집필한 많은 논문을[50] 통하여 다국적기업이론의 체계를 보다 자세히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전통적 경제이론으로서 무역이론과 자본이동론 및 입지론을, ② 무역론적 접근이론으로서 신요소이론과 신기술이론 및 비교이윤율이론을, ③ 자본론적 접근이론으로서 포오트폴리오이론과 자본형성(기업투자)론을, ④ 산업조직론적 접근이론으로서 독점적우위론과 과점적대응론을, ⑤ 기업성장론적 접근이론으로서 ① 기업성장(발

45) 빈 봉식,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제11권, (1986), pp. 225~231.
46) 김희욱, "한국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4), pp.3~17.
47) 반병길, 다국적기업론, (박영사, 1986), 제5장.
48) 허남벽, "중진국형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모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6).
49) 민상기, "한국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인제 황병준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출판부(1984), pp. 831-862
50) 노택환 교수의 많은 논문중 다국적기업이론체계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것임. "다국적기업의 경제이론적 연구-다국적기업의 경제이론으로서의 제품주기이론-", 사회과학연구, 제3집 제2항,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3), pp. 147~200.

dCollection

전)론과 경영자원이전론을, ⑥ 자본시장적 접근이론으로서 자본화율격차이론과 증권시장불완전성이론을, ⑦ 경영행위론적 접근이론으로서 의사결정이론과 세계기업의 합리적 모델이론, 그리고 慣性 및 장소선호이론을, ⑧ 기업이론적 접근이론으로서 내부화이론과 專用化理論 및 다양화이론을, ⑨ 종합적 접근이론으로서 절충이론을 들고 있다.

8) 표정호 교수는 해외직접투자이론을 ① 거시-경제적 접근과 ② 미시-기업행태론적 접근 및 ③ 미시-거시통합이론으로 대별하고, ①에서는 i) 전통적 국제자금이동이론, ii) 무역보완이론, iii) 국민경제적 관점, iv) 급진주의적 견해로, ②에서는 i) 성장동기이론, ii) 산업조직이론, iii) 행동과학적 관점, iv) 자본시장접근이론, v) 내부시장이론으로 세분하고 있다.[51]

V. 재분류의 시도

앞의 Ⅳ장에서는 여러 논자가 설정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분류기준에 따른 체계를 살펴보았으나 각 체계간의 개별적 특성이나 보편화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상의 특성을 찾기가 어렵다. 즉 전체적 흐름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론의 유사성의 폭을 어느 규모로 정하느냐 하는 정도의 차와 비중을 어느 이론에 크게 두느냐 하는 가중치의 차로 말미암아 각 체계간에 차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이론을 종합하여 분류 또는 체계화하다 보면 기존의 일반화된 Paradigm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류 또는 체계화의 원천적 기준은 ① 동일 또는 근접계통내의 세목은 유사성을 갖춰야 한다는 합리성의 충족, ② 전세목이 가능한 한 망라되어 최대 다수의 세목을 내포해야 한다는 완전성의 충족, ③ 각 세목간의 경중이나 타당성이 상호비교될 수 있는 대비성의 충족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③에는 논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위험이 있기는 하나 단조로운 획일성은 체계화를 무의미하게 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기준에 충실토록 노력하면서 필자는 각 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점을 요약하여 언급하고 이론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재분류를 통하여 직접투자제이론을 체계화하고자 한다.[52]

---

51) 표정호, "해외직접투자이론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산업경영 제7집,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84), pp.201~226.

52) 해외직접투자동기에 따른 재분류를 위한 기존의 연구로서는 다음을 참조.
· N. S. Fatemi & G. W. William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 S. Barnes & Co. 1975)

dCollection

1. 전통무역이론적 접근(Traditional Trade Theoretic Approach)

1)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

A. Smith로부터 시작하여 D. Ricardo와 A. Marshall을 거쳐 Heckscher-Ohlin-Samuelson 정리에 이르는 무역이론은 국가간에 요소이동이 없이 요소부존의 차에 의해서 보다 풍부하게 부존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상호교환함으로써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론은 근본적으로 많은 가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국가간의 제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한 경제행위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하에서 개별기업의 수출·입을 벗어나는 직접투자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내지는 완화하면서 오늘날 국제화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 해외직접투자이론인데, 이를 국제무역과 대체하는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느냐는 것은 논자에 따라 다르다. 적어도 왜 직접투자에로 이행해야 되느냐는 것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겠다.[53]

2) 자본이동론(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Theory)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투자의 주류는 증권투자이었으며 이는 자본의 한계생산력 즉 이자율의 격차에 의해 국제간 자본이동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국제장기자본이동이론으로 그 해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이동에 수반하여 기술 또는 경영기법까지도 함께 이동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현상이어서 전통적인 자본이동론으로는 그 이론적 규명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복합적인 새로운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도 어디까지나 자본이동이 주이고 기술 및 경영기법은 이전된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이동이론의 설명력은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다.[54] 이 이론은 다음의 몇가지로 세분

· Arvind & V. Phatak, *Managing Mutinational Corporations*, (Praeger Pub., 1974)
· E. J. Kolde, *International Business Enterprise*, (Prentice-Hall, 1968)
· N. H. Jacoby, *The Center Magazine*, Santa Barbara, Vol.3, No.1, (May 1970)
· M. Brooke & H. L. Remmers, *The Strategy of Mutinational Enterprise* : *Organization & Finance*, (Longman, 1970)
· D. K. Eiteman & A. I. Stonehill,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Addison-Wesley, 1979)
· S. H. Robock & K. Simmonds, *International Business & Multinational Enterprises*, R. D, (Irwin Inc., 1977)

53) 이영덕, "해외직접투자의 제이론체계에 대한 음미", 경영논집, 제1권, 충남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85), p. 13.
54) 표정호, 전게논문, p.208.

dCollection

될 수 있다. 기성이론으로서 정설화되어 주지된 학설은 경우에 따라 설명을 략하기로 한다.

① 이자율격차이론 또는 비교이윤율이론(Differential Return Theory)

비교생산비설에 대응하는 명제로 국가간 자본의 한계수익율차로 국제자본이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이는 투자국과 수용국간의 자본한계생산력차가 자본이동의 원인이 되며 이로써 양국의 국민소득을 모두 상승시키게 된다는 것이다.[55] 그러나 이 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동일산업내에서 국가간 또는 경제그룹간 상호투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전통적 자본이동론은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할 수 없으며,[56] 실증적 자료에 따르면 투자국의 이자율이 수용국의 그것보다 반드시 낮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57]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거시경제적 분석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이론의 관점에서 전개된 이론은 다음과 같다.

i) 맥도겔-켐프 모델(MacDougell-Kemp Model, 1960)[58]

ii) 립친스키정리(Rybczynski Theorem)[59]

② 입지론(Locatioo Theory)

이 이론은 A. Weber(1958),[60] A. Lösch(1954),[61] E. Hoover[62] 등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기업의 목표인 이윤·시장점유의 관계에 의한 기업성장에 초점을 두고 저비용입지나 고수익입지를 추구하는 기업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관세·비관세비용을 넘어서거나 여러 환경적 제약을 벗어나며 현지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인 등을 이용하기 위한 최적입지를 결정하는 기업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산업입지론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후자의 기본적 사고는 비용측면에서의 생산비·운송비 등과 수익측면에서의 판매량·수요 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지론적 접근에 의하면 국제경영환경분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려는 접근이나 전통적 무역이론에서의 접근이나 국제자본이동론적인 접

55) G. D. A. MacDougall, Loc. cot.,
56) F. R. Root, op. cit., p.520.
57) J. Fayerweather, op. cit., p.170.
58) K. Kojima, op. cit., pp.68~70.
59) T. M. Rybczynski, "Factor Endowment and Relative Commodity Prices", Economica, (1955).
60) A. Weber, Alfred Weber's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ies, translated by C. J. Friedrich, Univ. of Chicago Press, (1920) 참조.
61) A. Lösch, The Economics of Location (J. Wiley & Sons Inc., 1967).
62) E. M. Hoover, Th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McGraw-Hill, 1948), Cited by D. M. Smith, Industrial Location, (J. Wiley & Sons, 1981).

dCollection

근 등이 이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2. 신무역이론적 접근(New Trade Theoretic Approach)

D. Ricardo류의 전통적 무역이론은 생산비가 노동량에 의존한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시작하였으므로 현실적 무역이론으로서는 한계가 불가피하고, Heckscher-Ohlin의 요소부존이론도 비교생산비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자유무역이 요소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공은 크나 비현실적인 많은 가정위에 정립되어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론의 개발필요성이 높아 왔다. 특히 戰後 수평적 무역형태의 팽창으로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지 않아도 수요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개발(R&D), 기술진보, 노동숙련,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에 적합한 이론정립의 노력이 1960년대 이후 두드러져 다수의 이론이 개발되었는 바 이들의 특징은 수요면의 중시, 동기적 분석, 생산요소질적차이의 중시, 기술적 역할의 중시, 그리고 독과점적 경쟁의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1) 신요소이론(Neo-Factors Theory)

Kennen과 Vanek에 의해 강조된 이론으로 생산요소로서 노동과 (물적)자본 이외의 인적자본과 천연자원 등을 추가시킨 H-O정리의 확장적 이론으로 완전시장을 전제로 거시분석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

① 숙련노동설(Theory of Skilled Labor)

숙련노동의 상대적 이용가능량이 각국 공업제품의 생산입지와 무역패턴을 결정한다는 D. B. Keesing(1965)의 이론으로 Leontief 역설을 해결키 위해 시도되었다.[63] 숙련노동지수가 높은 나라는 숙련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이 지수가 높은 재화를 수출하고 대반로 낮은 지수의 재를 수입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② 연구개발론(Theo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술진보 및 혁신의 원동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이 무역패턴의 결정에 지배적 역할을 한다는 이론으로 W. Gruber, D. Metha, R. Vernon 등의 공동연구(1967)[64]와 D. B. Keesing의 단독연구로 논증되었는데 연구개발활동과 수출실적

63) D. B. Keesing, "Labor Skills and International Trade : Evaluating Many Trade Flows with a Single Measuring Devic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Vol.XLVII, (Aug, 1965), pp. 287~294.

64) W. Gruber, D. Metha, and R. Vernon, "The R&D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dCollection

간의 연관성이 실증되었다(1967).

2) 신기술이론(New Technological Theory)

① 기술격차론(Technological Gap Theory)

M. V. Posner[65]가 종래의 단편적인 관념을 종합정리하여 이론적 모형을 작성하고(1961) G. C. Hufbaur[66]는 여기에다 저임금무역(Low Wage Trade)을 추가하여 화학합성원자재의 무역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과 그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1965).

② 제품주기(생산물순환)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

이 이론의 원천은 J. H. Williams[67], C. P. Kindleberger[68], G. D. A. MacDougall[69], G. K. Douglas[70], E. Hoffmeyer[71], S. B. Linder[72] 등의 연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나, 국제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일반화는 R. Vernon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위 하버드대학의 다국적기업 프로젝트(Harvard Business School Multinational Enterprise Project)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R. Vernon은 국제무역 및 투자의 발생을 비교우위론적 입장보다는 기술혁신의 시간성(timing), 기술의 경제효과, 불확실성 및 정보비지출의 효과 등을 강조하여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데(1966), 기술혁신에 의해 개발된 제품은 신제품기(new product stage), 성숙기(maturing stage), 표준화기(standardized stage)를 거치면서 신제품에 대한 국제간 기술격차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신제품기에는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독점적 우위 또는 제품차별화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작고, 따라서 생산입지에 따른 비용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기업은 국내에 생산입지를 선택하게되나 두 번째 단계인 성숙기에 이르면 대량

Investment of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IXXV, No. 1, (Feb, 1967), pp.20~37.

65) M. V. Posner, "International Trade and Technical Change", Oxford Economic Papers, (Oct, 1961).

66) G. C. Hufbauer, "Synthetic Material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London : Gerald Duckworth & Co., Ltd., 1965), pp.32~33.

67) J. H. Williams,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Reconsidered" Postwar Monetary Plans and Other Essays, (Oxford : Basil Blackwell, 1947).

68) C. P. Kindleberger, The Dollar Shortage, (New York : Wiley, 1950).

69) G. D. A. MacDougall, The World Dollar Problem, (London : MacMillan, 1957).

70) G. K. Douglas, "Product Variation and Trade in Motion Pictures", Ph. D. Thesis to MIT, (1963).

71) E. Hoffmeyer, Dollar Shortage, (Amsterdam : North-Holland, 1958).

72) S. B. Linder,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New York : J. Wiley, 1961).

dCollection

생산이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경쟁기업이 등장하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규모의 경제비용과 경영능력의 제고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세 번째 단계인 표준화기에 접어들면 제품생산이 표준화되며 생산기술의 개발도 거의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시장정보나 경영기술보다는 생산비가 기업의 최대관심사로 되어 생산입지는 임금이 낮은 개도국으로 이전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해외자회사로 부터의 역수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다음의 두 경우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모방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모방국정부가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보호 등의 유인책을 쓸 때 기존의 수출시장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방어적 목적에서 현지에 생산시설을 투자하게 된다.[73] 둘째, 제품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가격경쟁을 하게 되고 모방국이 혁신국에 역수출을 함에 따라 본국시장에서의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하에 저생산비국가에 생산시설을 이동시키게 된다.[74] 제품주기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외 기존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어적 기업전략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75]

동이론은 무역과 직접투자를 해외시장이용이라는 같은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도입한 동태적 이론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76] 그러나 제품주기이론 자체는 어느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직접투자가 꼭 발생한다는 필연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국간의 상호투자를 설명하지 못하고 초기투자의 설명에는 타당하나 이미 해외에 생산 및 마아케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의 형태를 설명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하겠다.[77]

③ 대표적수요이론(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

S. B. Linder(1961)에 의해 성립된 이 이론은 각국간의 요소부존비율이 다르더라도 국가간의 수요구조가 유사하면 공산품의 무역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특정의 공산품이 비교우위가 유지되어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적 유효수요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78] 무역패턴은 수요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이 구조는 소득수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변동은 수요구조의 변동을 초래

73) 小島 淸, 多國籍企業の直接投資, (東京 : タイヤモンド社, 1981), p.238.
74) R. Vernon, op. cit., p.200.
75) 양성모, 전게논문, p.7.
76) J. H. 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George Allen and Unwin, 1981), p.77.
77) N. Hood and S. Young, op. cit., pp. 44~86.
78) S. B. Linder, Loc. cit.,

dCollection

하며 이에 따라 무역패턴도 변동된다는 이론으로 수요가 공급을 인도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나 수출입이 전적으로 수요에서 비롯된다는 데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④ 입수가능성론(Availability Theory)

생산물의 입수가능성격차 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차에서 무역패턴 결정요인을 규명코자하는 I. B. Kravis(1956)의 소론으로서[79] 정식화나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공산품의 무역패턴결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방법 또는 이론구성의 맹아로 평가된다.

3) 무역보완이론(Trade Supplementary Theory)

C. P. Kindleberger(1969)는 전통적인 비교우위산업의 국내시장에서 투자기회를 상실한다든가 아니면 수입국의 관세 등 인위적인 장벽으로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동산업에 특화했던 기업은 그 투자기회를 해외로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80] 한편 R. A. Mundell은 P. A. Samuelson의 요소가격균등화정리에 입각하여 무역장애가 생산요소이동의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양자는 모두 해외투자를 상품무역과의 대체 내지는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개별생산요소의 상대적인 가격은 물론 절대적인 가격도 국제간에 균등화되므로 해외직접투자는 발생할 소지가 없지만 관세·수입물량제한 등 무역장애요인이 생기게 되면 해외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역과 해외직접투자가 동시에 증대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는 무역장애가 약화되거나 제기되면 국가의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므로 각 기업은 요소가격이 보다 저렴한 국가로 해외진출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화폐자본적접근(Monetary Capital Approach)

1) 포오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

G. V. Stevens(1972)와 M. F. Prachowny(1972) 및 G. Ragazzi(1973) 등에 의해 설명된 이론으로 투자자는 이익률 뿐 아니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는

79) I. B. Kravis, "Availability and Other Influences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LXIV, (Apr. 1956), pp. 143~155.

80) C. P. Kindleberger, "The Theory of Direct Investment",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 Yale Univ. Press, 1969), pp.2~3.

dCollection

기초 위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분산(diversification)을 고려한 자본이동이며, 기대수익율의 함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는 상대적으로 기대수익율이 높고, 수익률의 분산이 낮은 지역으로 행해진다.[81]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들은 해외직접투자의 원인을 국제금융시장의 불완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제간 자본이동의 제약, 증권시장의 비효율성, 통화지역 등의 요인에 의해 국제금융시장이 불완전하게 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간자본이동은 외국의 이익률이 국내보다 높을 때, 이 이익률의 격차를 얻기 위한 경우와 외국의 이익률 자체는 국내이윤율과 차이가 없어도 경기의 흐름이 국내와 상이할 때, 국제적 포오트폴리오(portfolio) 작성에 의한 위험분산을 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는 있지만, 자국에서의 자본유출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 제약은 외국자본으로 생산시설이 설립되어 국내고용이 창출되는 직접투자보다 단지 이자수익과 배당만을 취득하려는 주식 또는 채권을 구매하는 간접투자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다. 따라서 외국의 투자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간접투자에 의한 침투가 불가능할 때는 직접투자로 투자전환을 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국제적 포오트폴리오 작성에 의한 위험분산이 국제간 간접투자의 제약으로 불가능할 때는 세계각국에 직접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주식투자함으로써 국제적 위험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82] 한편 외국의 증권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간접투자가 가능한 경우라도 증권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증권매입을 위한 간접투자보다 경영권을 장악하는 직접투자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이론도 있다.[83]

2) 자본형성(기업투자)론(Capital Formation Theory)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Jorgenson(1963), W. H. Grubel 및 Miller and Whiteman류의 이론으로 내국기업의 자본형성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완전시장을 전제로 미시적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즉 Jorgenson은 해외직접투자를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라기 보다는 해외에서의 자본형성활동으로 보았다.[84]

---

81) G. H. Kopits, Location and Multinational Firm Behavior : A Critical Survey in Sankee Min. (ed), Readings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Seoul : Bee Bong Books, 1981), p.752.
82) A. M. Rugman, Inside the Multinationals, (Croom Helm, 1981) 參照.
83) G. Ragazzi, op. cit., 17~34.
84) Jorgenson,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dCollection

이 이론은 개도국기업들이 본국보다 자본시장이 더 발달된 선진국에 진출할 때 대부분 현지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데는 설득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歐美다국적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진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일면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이론은 국제자본이동과 마찬가지로 해외지접투자를 자본에만 한정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하겠다.

4. 자본시장적 접근(Capital Market Approach)

1) 자본화율격차(화폐 접근 또는 통화지역접근)이론(Currency Area Theory)

R. Z. Aliber(1972)는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자국과 수용국 양국의 통화단위의 차이를 중시하였다. 즉 강세통화지역에서 약세통화지역으로의 자본이동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85]

이 이론은 이윤율격차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화 프레미엄(premium)이라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화의 과대평가(orervaluation)는 해외 직접투자로의 유출을 유도하며 과소평가(undervaluation)는 해외로부터 직접투자의 유입을 유인하게 된다. 즉 강세통화지역의 기업들은 해외의 경쟁기업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또한 많은 해외자산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구명되어야 하는 주요문제는 자본이나 지식의 어느 한 쪽 또는 양자가 각각으로서가 아닌 일체로서 이전되는 요건에 대한 이론적인 구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미흡하다는 한계성을 지닌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50년대, '60년대 미국기업의 대유럽진출이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강세를 보였던 서독,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급증현상[86] 등을 통해 현실적인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하겠으나, 같은 통화지역간의 상호투자나 동일통화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통화가치와 경제상황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전적으로 환율이나 통화가치의 차이에서만 비롯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협견이라 할 수 있다.

1963), pp.247~259.

85) A. Z. Aliber, op. cit., pp.17~34, pp.156~173.

86) S. H. Robock, K. Simmonds & J. Zwich, op. cit., p.43.

dCollection

2) 자본(증권)시장불완전이론(Security Market Imperfection Theory)

G. Ragazzi(1973)에 의한 자본시장불완전이론은 통화의 안정성보다는 자본시장 자체의 불완전성에서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찾고 있다.[87] 즉 직접투자는 기술우위나 과점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국제포오트폴리오 분산투자이익을 누릴 수 없을 때 투자가들은 비효율적인 현지국의 자본시장보다는 직접투자를 통해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다른 사업대안 대신에 왜 직접투자를 하느냐는 문제의 해답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이론은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가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 하겠다.

5. 기업특유요인적 접근(Firm Specific Factors Approach)

1) 산업조직론적 접근이론(Industrial Orgnanizational Approach)

산업조직론은 미시적 기업의 전체집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집합을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등과 같은 산업이라는 범위로서 구분짓고 이 산업시장의 불안전성에서 해외직접 투자를 설명하려는 이론으로서 구미선진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독점적 우위이론, 과점적 경쟁이론 및 제품주기이론으로 나뉜다.

①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S. H. Hymer(1966)에 의해 제기되고 C. P. Kindleberger(1969), R. E. Caves(1974)에 의해 발전된 이 이론은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해외투자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FDI는 독점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불완전한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제품차별화, 특수마아케팅기법 및 경영능력 그리고 자본조달능력의 차이,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경제의 존재, 그 밖에 정부의 조세정책, 환율정책 등을 들고 있다.[88]

한편 Caves는 신규상품은 제품차별화 때문에 그 자체가 독점화되는 성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를 비롯한 주요자원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발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역시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이론은 기업이 지닌 독

87) G. Ragazzi, Loc. cit.,
88) S. H. Hymer, Loc. cit.,

dCollection

과점적 성격 때문에 해외투자가 발생하고 나아가 해외투자에 의해 그 기업의 독과점적 체계는 한층 강화 내지 확대된다는 데 그 이론적 기초를 두면서 특히 구미선진국 기업의 해외투자동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② 과점적 경쟁(대응, 반응)이론(Oligopolistic Reaction Theory)

해외직접투자를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특유한 행동양식(과점적쟁경)이라고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F. Knickerbocker(1973)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89] 과점기업들은 동종산업 속에서 경쟁기업의 행동에 지극히 민감하여 과점적 경쟁이라는 과점산업특유의 경쟁형태를 낳는다. 즉 한 기업이 신제품을 도입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신원료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적우위를 가지려 한다. 이때 경쟁적 기업들은 민감한 행동으로 대처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선도기업의 우위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과점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거나, 시장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마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선도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과점적 대응책으로서 경쟁기업들도 동일국가에 진출하는 방어적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점적 경쟁의 결과는 국내과점기업들이 특정투자대상국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를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과점기업의 일차적 이익극대화라 하기 보다 최소한 경쟁기업과 동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고 같은 속도로 성장하여 기업간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 이론은 선진국간의 상호투자와 동일업종의 미국기업들이 단기간내에 동일투자 대상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현상(즉 과점적 대응책으로서의 해외직접투자현상)은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선도기업의 최초투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의 설명은 독점적 우위이론으니 측면에서 찾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2) 기업발전(성장)론적 접근(Business Growth Approach)

① 기업성장(동기)이론(Theory of Business Growth)

E. T. Penrose(1956)와 E. J. Kolde(1969) 및 C. P. Kindleberger 등의 주장으로 해외직접투자활동은 기업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즉, 한 기업체가 다국적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루 속히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 기업체이든간에 1기업체, 1상품(one firm, one product)의 상태에서

89) F. Knickerbocker, op. cit., Chapt. 3.

dCollection

시작하여 국내시장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경영의 다각화, 거대화, 다국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적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당연하다는 것이 기업성장론의 핵심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오늘날의 거의 모든 다국적기업들이, 처음에는 국내시장지향적 기업으로서 수출로 해외운영에 돌입한 다음, 단계적인 전환을 거쳐 해외직접투자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다국적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을 밟는 것은 기업성장론의 좋은 예증(illust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경영자원이전이론(Theory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Management Resources)

E. T. Penrose, J. Fayerweather 등에 의한 이론으로 해외직접투자란 자본, 경영능력, 기술적 노우하우 등을 포함한 경영(기업)자원이 하나의 패키지(a package)로서 투자수용국(investment recipient country)에 이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이다.

여기서 경영자원이란 기업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폭 넓게 중요한 능력을 발휘하는 주체인 경영자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관리 노우하우와 경험, 특허와 기술적 노우하우, 마아케팅기법 등과 같은 전문적 지식, 판매인력과 일선판매기구, 원료공급원, 자금조달, 시장지위, brand name과 trade mark, 신용, 정보수집망, 연구개발조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 기업체가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해외생산·마아케팅 등 다국적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자본의 해외투자, 경영능력(관리계약의 유무를 막론하고), 기술지식(라이슨싱 및 기술제공의 유무를 막론하고) 등을 패키지로 해외에 이전시켜 해외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된다. 즉, 한 기업체가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다국적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 그 기업체는 거의 모든 국제경영전략(해외시장진출·개입전략)을 골고루 균형있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국적경영(multinational management)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위와 같은 예증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경영자원이전이론은 상대적으로 실용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③ 순위이론(Pecking-Order Theory)

이 이론은 G. C. Hufbauer(1966)가 국가간의 기술격차에 의한 국제무역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하고[90] L. T. Wells(1977)가 이를 FDI이론으로 확장한 것이다.[91]

---

90) G. C. Hufbauer, Loc. cit.,

91) L. T. Wells, J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T. Agmon and C. P. Kindleberger ed., Multinationals from Small Countries, (Cambridge : MIT Press,

dCollection

Hufbauer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한 중진국의 수출제품이 선·후진국 양쪽으로 수출될 수 있는 이유를 후진국에 대해서는 후진국의 모방지체로 인한 기술격차상의 우위를 갖고 있고 선진국에 대해서 노동비격차상의 우위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Wells는 이러한 설명방식을 선개발도국의 후개발도국에 대한 FDI에 적용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개도국 투자기업이 현지기업이나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우위의 원천은 모국시장의 특수한 성격에 잘 적응한 결과로서 얻어진다고 하였다.

④ 유동성이론(Liquidity Theory, Gambler's Earning Hypothesis)

E. R. Barlow와 I. T. Wender(1955)가 주축이 되어 국내투자유동성이론을 해외투자에 원용한 이론으로 해외투자를 지향하는 특정기업내부의 현금흐름(Cash Flow) 과 해외투자지출간에 正의 상관관계가 성립될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3) 기업이론적 접근(Firm Theoretic Approach)

① 기업내부화(내부시장) 이론(Theory of Internalization)

다국적기업이 외부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거래를 기업내부거래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장을 창조하게 되는데 국제거래에서 이러한 내부시장화가 이루어질 때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다는 요지이다. 내부화란 기업내에 시장을 창조하는 과정이며[92] 수출이나 Licensing이 아닌 해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이 이론은 다음 3가지 명제로 구성된다. 즉, i) 기업은 불완전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며, ii) 중간제품의 외적 시장이 불완전할 때에는 기업이 이를 우회하여 내부시장화하게 되고, iii) 이 현상이 국경을 넘어 발생할 때 다국적 기업이 탄생한다.[93]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이론은 R. Coase(1937)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94] 그의 연구는 O. Williamson (1975)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계승·진행되었고,[95] P. Buckley와 M. Casson(1976)은 이를 다국적기업에 적용하였다.[96] 그 후 A. Rugman(1981)은 내

1977), pp. 145~147.

92) A. M. Rugman, Inside the Multinational, (New York : Colombia Univ. Press, 1981), p.28.

93) 小島 清· 小澤煇智, 總合商社の挑戰, (東京 : 産業能率大學出版部, 1981), p.218.

94) R. H. Coase,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4, (1937).

95) O. E. Williamson, "Markets and Hierachies : Some Elementary Conside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3), pp. 316~325.

dCollection

부화이론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이를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이론으로 제시하였다.[97]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① 해외진출의 동기가 명확치 않고, ② 기업이 외생적인 시장불완전성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창출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며, ③ 해외직접투자의 방향 즉 생산입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② 전용화(사적소유가능성)이론(Appropriability Theory)

S. P. Magee(1977)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불완전시장을 전제로 미시적 분석기법을 통한 연구이며 산업조직론적 접근에 의해 정보 또는 기술의 전용화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이 된다는 요지이다.

③ 다양화이론(Diversification Theory)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기업내부적 거래를 통한 위기의 분산을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D. A. Lessard의 이론으로 불완전시장을 전제로 미시분석하고 있다. A. M. Rugman(1975)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이 해외의 다수국에 주식투자 또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국제적 위험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험분산 서비스이론(Diversification Service Theory)라고도 한다.

6. 기업행태(행위)론적접근(Behavioral Approach)

① 기업행위이론(Behavioral Theory)

Y. Aharoni(1966)는 기업행위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반드시 합리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98] 최고경영자의 관심의 고조, 외국정부의 제안, 경쟁기업의 해외진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격화로 시장상실의 위험직면 등의 외부적 자극이 생기면 경영층은 해외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타당성을 검토할 때 正의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기존의 합리적 설명과는 달리 행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

96) P. J. Buckley and M. C. Casson,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Macmillan, 1976).
97) A. Rugman, "Internalization as a General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A Re-Appraisal of the Literatur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16, (1980), pp.355~379.
98) Y. Aharoni,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Boston : Harvard Univ. Press, 1966), 42~46.

dCollection

이 특징이며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② 세계기업의 합리적 모델이론(Theory of Rational Model of World Enterprise)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질적·양적으로 범세계적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며 이러한 세계지향적 태도에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S. H. Robock과 K. Simmonds의 주장에 따른 이론이다.

7. 거시-국민경제적 접근(Macro-National Economic Approach)

해외직접투자가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내지 시장점유율확대를 목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투자국과 수용국간의 갈등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역무역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수용국 양국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국과 수용국간의 잠재적 또는 현재적 비교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투자국측에서는 비교 열위에 있고, 수용국측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양국 모두에게 발전계기가 되고 무역도 확대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경제적 관점이다.

小島 淸(1971)은 이러한 국민경제적 접근으로 미국형해외직접투자(역무역지향적 해외직접투자)에 대응되는 일본형 해외직접투자 모델을 제시[99]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거시적 국민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

① 일본에서 불가결한 자원의 확보와, ② 대개도국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기계설비, 반제품 등 생산재의 수출촉진이동 등 무역지향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③ 일본의 노동력부족, 고임금 등으로 일본국내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잃어가는 섬유, 잡화산업 등의 개도국에로의 이식 등 무역지향적 내지 무역보완적 동기에 의해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T. Ozawa도 역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로서 ① 본국의 생산요소 축소성

② 증가하는 환경적 제약 및 주요산업자원 공급에 있어서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같은 거시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비교하면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① 미국 및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미시적 요인이 크게

99) 小島 淸, 海外直接投資論, (東京 : ダイヤモソド사, 1977), pp.181~189.

dCollection

작용하나, ② 일본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는 거시적·국민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전술한 ①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화, 조직고도화 등을 통한 기업자체의 발전의지의 결과라 할 수 있고, ②의 경우는 국내 부존요소의 부족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환경의 제약 등 거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다.[100]

둘째, 일본의 투자는 투자국과 수용국에 과점적 시장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小島 淸 교수의 주장을 확장하여 일본에는 과점적 구조가 없다는 점이 일본기업들의 기존시장방어를 위한 경쟁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유리한 부존요소 풍부국으로 투자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즉 특정산업이 경쟁적일수록(과점적경쟁이 약할수록)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여러 가지 투자결정요인들을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일본의 독특한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이 이론은 실증적 근거의 제시가 없고 또 투자결정요인의 비교에만 한정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정태적 분석이며 투자국 기업이 현지기업에 대해서 갖는 경쟁상의 우위요인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8.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

① 절충이론(Eclectic Theory)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이론과 무역이론에 대한 입지론적 접근방법(locational approach)을 절충하여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새로운 시도에서 나온 것이 절충이론이다. 이 이론의 주창자들은 '국제상품'(international produc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포괄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특정기업체는 그 소유적 우위(ownership advantages)와 투자수용국의 입지적 환경(locational endowments)을 고려하여 수출로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해외직접투자이론은 주로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특정기업체의 내부화된 제생산요소의 우위(internalized advantages in factors of production), 즉 소유적 특수요소(ownership-specific factors)만을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소로 간주했는데, 이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직접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내부화된 제생산요소의 우위와 입

100) T. Ozawa,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Oxford Economic Papers, (March, 1979), p. 88.

dCollection

지적 특수환경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의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세계투자환경에 비추어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이론에서는 특정기업체의 내부화된 소유적 특수요소로서 ① 기술 및 마아케팅기법상의 우위, ② 과점적 시장구조와 행동양식, ③ 과잉경영능력, ④ 금융·통화운용상의 우위(저렴한 자금조달, 투자의 다양화), ⑤ 원료구입상의 우위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입지적 특수환경요소에는 ① 실질임금비용, ② 시장규모와 그 성장전망, ③ 무역장벽, ④ 현지국정부의 각종 규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J. H. Dunning(1980[101], [102])이 제시하고 N. Hood와 S. Young[103])이 더욱 정치화시켰다.

② 거시-미시통합 모델(Macro-Micro Model of T. Ozawa)

기존의 독점적 우위이론에 대한 보완적인 분석의「틀」로서 제시된 小島모델의 확장인 T. Ozawa 모델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한 요인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1979). 첫째, 미국 및 기타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는 미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대부분 국민경제적·거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구미의 다국적 기업은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화, 조직고도화 등을 통한 기업자체의 발전지향의 결과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국내 부존요소의 부족, 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환경적 제약 등 거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104] 둘째, 일본의 투자를 설명함에 있어 투자국과 수용국에 과점적 시장구조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小島 淸의 주장을 확정하여 일본에 이러한 과점적 구조가 있지 않다는 점이 그들의 기존 시장을 방위할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좀 더 유리한 부존요소가 있는 국가로 투자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즉 일본의 경우는 특정산업이 경쟁적일수록, 즉 과점적 성격이 약할수록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 모델이 갖는 의의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요인들을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일본의 독특한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투자의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에 한정되었다는 점과「고지마」이론과 마찬가지로 정태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105]

---

101) J. H. Dunning, "Toward o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l Production :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80), pp.9~11.
102) J. H. 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op. cit., Chapt. 2
103) N. Hood & S. Young, op. cit., pp.48~59.
104) T. Ozawa, op. cit., pp.84~88.
105) 표 정호, 전게논문, p.223.

dCollection

Ⅵ. 결 언

해외직접투자는 경영경제적,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경제이론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식도 다양하며 제이론의 분류체계도 목표, 동기, 우위, 입지특유, 기업특유, 행태, 미시·거시, 완전불완전시장 등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고는 종합이론개발을 위한 전단계로서 제이론을 그 체계면에서 재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으로서의 요건과 범위 및 그간의 논의된 이론을 1970년대 중반기와 그 후반기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고 국내외 논자들의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 대체로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시작하여 통합이론으로 귀결되는 대동소이함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각 이론의 접근방법을 기준으로 전체를 여덟의 영역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학설별로 세분하였다. 즉 1) 전통무역이론적 접근으로 ① 비교우위론과 ② 자본이동론으로서의 ⅰ) 이자율격차이론(MacDougell-Kemp Model, Rybczynski 정리)과 ⅱ) 입지론, 2) 신무역이론적 접근으로 ① 신요소이론 즉 ⅰ) 숙련노동설과 ⅱ) 연구개발론, ② 신기술이론 즉 ⅰ) 기술격차론, ⅱ) 제품주기이론, ⅲ) 대표적 수요이론 및 ⅳ) 입수가능성론, ③ 무역보완이론, 3) 화폐자본적 접근으로서 ① 포오트폴리오이론과 ② 자본형성론, 4) 자본시장적 접근으로 ① 자본화율격차이론과 ② 자본시장불완전이론, 5) 기업특유요인적 접근으로 ① 산업조직론 분야의 ⅰ) 독점적 우위이론과 과점적 경쟁이론, ② 기업발전론분야의 ⅰ) 기업성장이론 ⅱ) 경영자원이전이론, ⅲ) 순위이론 및 ⅳ) 유동성이론, ③ 기업이론적 측면에서의 ⅰ) 기업내부화이론, ⅱ) 전용화이론 및 ⅲ) 다양화이론, 6) 기업행태론적 접근으로 ⅰ) 기업행위이론과 ⅱ) 세계기업의 합리적 모델이론, 7) 거시-국민경제적 접근이론(小島 이론), 8) 통합적 접근으로 ⅰ) Dunning의 절충이론과 ⅱ) Ozawa의 거시-미시 통합모델이 그것이다. 다만 국제정치경제적 차원(International Political-Economic Level)에서 다국적 기업의 확장에 따르는 파급효과에 대한 이념(Ideology)을 중심으로 분류되는 자유주의모델(The Sovereignty-at-Bay Model), 급진주의(종속)모델(The Dependency Model) 및 신중상주의모델(Neo-Mercantilist Model)을 논외로 하였다.

미시-거시접근의 통합적 가능성은 여러 저술에서 보여지나 이의 실증적 연구의 심화와 규범적 통합 및 개발도상국에 부응하는 일반이론의 개발 등이 미결의 과제라 하겠다.

dCollection

참 고 문 헌

1. 김희욱, "한국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4.
2. 노택환, "다국적기업의 경제이론적 연구-다국적기업의 경제이론으로서의 제품주기이론", 사회과학연구, 제3집 제2권,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3.
3. 민상기, "한국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인제황병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4. 반병길, 다국적기업론, 박영사, 1986.
5. 빈봉식,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제11권, 1986.
6. 양성모,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진흥효과에 과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6.
7. 어윤대, 방호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행태에 관한 실증적연구", 경영논총, 26집, 고대경영대학, 1984.
8. 이영덕, "해외직접투자의 제이론체계에 대한 음미", 경영논총, 제1권, 충남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85.
9. 표정호, "해외직접투자이론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산업경영, 제7집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84.
10. 허남벽, "중진국형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모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6.
11. 大塚久雄, 社會科學の方法, 岩波新書, 東京 : 岩波書店, 1979.
12. 小島 清, "多國籍企業の 直接投資", 東京 : ダイヤモンド社, 1981.
13. _____, 海外直接投資論, 東京 : ダイヤモンド社, 1977.
14. 小島 清·小澤煇智, 總合商社の挑戰, 東京 : 産業能率大學出版部, 1981.
15. 小田 正雄, "直接投資の一般均衡分析", 經濟論集, 關西大學, 第24券6號, 昭和50年 3月.
16. 源 正行, "直接投資の理論", 現代國際經濟學の展開, 東京 : 勁草書房, 1981.
17. 池間 誠, "直接投資 : 一の理論的 アプローチ", 世界經濟評論, 18(8), 1974年 8月號
18. 紙本 清, 國際貿易論の 研究, 東京 : 千倉書房, 1983.
19. _____, "比較生産費說と特殊的要素", 國民經濟雜紙, 1968.

dCollection

20. _____, "海外直接投資の理論的 分析", 神戶大學 經濟學硏究年報, 1975.
21. Agarwall, J. P.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A Surve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Review of World Production, Oxford Economic Papers, No. V., 1973.
22. Aharoni, Y.,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66.
23. Aliber, R. Z.,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Kindleberger, C. P.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 MIT Press, 1970.
24. Buckley, P. J. and Casson, M. C.,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 Macmillan, 1976.
25. Caves, R.,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Feb. 1971.
26. Coase, R.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1937.
27. Douglas, G. K., "Product Variation and Trade in Motion Pictures", Ph. D. Thesis to MIT. 1963.
28. Dunning, John H.,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1.
29. _____, "The Ddterminant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Oxford Economic Papers, No. V, 1973.
30. _____, "Toward o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ies, 1980.
31. Giddy, I. H. and Young, S., "Co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in Rugman, A. M. ed. New Theories of the International Enterprise, London & Canberra: Croom-Helm, 1982.
32. Grosse, G., Essays in International Business, Florida: Coral Gables, 1981.
33. Gruber, W., Metha, D., and Vernon. R., "The R & D Factor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of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LXXV. No.1. Feb. 1967.
34. Hoffmeyer, E., Dollar Shortage, Amsterdam: North Holland, 1958.
35. Hood, N. and Young, S.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Inc., 1979.
36. Hoover, E. M., Th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McGraw-Hill, 1948, Cited

dCollection

by Smith, D. M., Industrial Location, J. Wiley & Sons, 1981.
37. Hufbauer, G. C., "Synthetic Material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London : Gerald Duckworth & Co., Ltd., 1965.
38. Hymer, S. H.,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National Firms, MIT Press, 1976.
39. Hymer, S. H., United State Investment Abroad, in Peter Drysdale e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 Press, 1972.
40. Jorgenson,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3, 1953.
41. Keesing, D. B., "Labour Skills and International Trade: Evaluating Many Trade Flows with a Single Measuring Device", Review of Eonomic and Statistics, Vol.XLⅦ, Aug. 1965.
42. Kindleberger, C.P.,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9.
43. _____, The Dollar Shortage, NewYork: Wiley, 1950.
44. _____, "The Theory of Direct Investment",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9.
45. Knickerbocker, F. T., Oligopolistic Rea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Harvard Univ. Press, 1973.
46. Kojima, K., Direct Foreign Investment, New York: Praeger, 1979.
47. Kopits, G. F., "Taxation and MNE Behavior", IMF Staff Papers, 1976.
48. Kravis, I. B., "Availability and Other Influences on the Commodity Composition of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LXⅣ, Apr. 1956.
49. Lall, S., "Transnationals Domestic Enterprises and Industrial Structure in Host LDCS: A Survey", Oxford Economic Papers, 1978 in Lall S. e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1980.
50. Linder, S.B.,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New York: J. Wiley, 1961.
51. Lösch, A., The Economics of Location, J. Wiley & Sons Inc., 1967.
52. MacDougall, G. D. A., "The Benefits and Costs of Private Investment from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 Economic Record, No. 36, March, 1960.
53. _____, The World Dollar Problem, London: MacMillan, 1957.

dCollection

54. Mundell, R. A.,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Oxford Economic Papers, Mar, 1979.
55. Ozawa, T.,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Oxford Economic Papers, Mar, 1979.
56. Posner, M. V., "International Trade and Technical Change", Oxford Economic Papers, Oct., 1961.
57. Purvis, D.D., "Technology, Trade and Factor Mobility", Economic Journal, Sept., 1972.
58. Ragazzi, G., "Theories of the Determinant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Staff Papers, IMF, July, 1973.
59. Robock, S. H. and Simmonds, K., and Zwich, J., Internationa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Homwood: Richard D. Unwin Inc., 1977.
60. Root, F. 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d., Cincinnati: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78.
61. Rugman, A. M., Inside the Multinationals, New York: Colombia Univ. Press, 1981.
62. _____, "Internalization as a General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 Re-Appraisal of the Literatur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16, 1980.
63. _____, Multinationals in Canada: Theory, Performance, and Economic Impact, 1980.
64. Rybczynski, T.M., "Factor Endowment and Relative Commodity Prices", Economica, 1955.
65. Schmitz, A and Helmberger, P., "Factor Mobilit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Case of Complementarity",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70.
66.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Vol.80, 1966.
67. Weber, A., Alfred Weber's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ies, translated by Friedrich, C. J., Univ. of Chicago Press, 1920.
68. Wells, L. T. Jr., "The Inter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gmon, T. and Kindleberger, C. P., ed., Multinationals from Small Countries, Cambridge: MIT Press, 1977.

Collection

69. Williams, J. H.,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Reconsidered", Postwar Monetary Plans and Other Essays, Oxford: Basil Blackwell, 1947.
70. Williamson, O. E., "Markets and Hierachies: Some Elementary Conside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3.

KOREA MARITIME UNIVERSITY
1945
한국해양대학교

dCollection